존 오스왈트 박사, 이사야, 세션 24, 이사야. 49-51

© 2024 존 오스왈트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이사야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John Oswalt입니다. 이사야서 49장부터 51장까지의 24회기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당신이 여기 우리 가운데 임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성장하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소생시키기 위해 이곳에 성령님의 임재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책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오늘 밤 여러분이 그 책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함께 보냈기 때문에 이 부를 우리 마음에 적용하고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요 부분은 7장부터 39장입니다. 신뢰는 섬김의 기초입니다. 나는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의 제목을 은혜, 동기, 섬김의 수단으로 정했습니다.

우리는 40장이 어떻게 서문으로 이해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고 지난주에 종의 동기인 은혜에 대한 공부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바벨론의 우상들에게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죄로 인해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너희를 나의 택한 종으로 삼아 우상과의 싸움에 나의 증인으로 삼아 내가 하나님임을 증명할 것이다. 그런 종류의 은혜는 그들이 그를 신뢰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한 종류의 은혜는 그들이 그분을 섬기는 데 그들의 삶을 바치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는 단순히 그들의 죄를 무시할 것입니까? 그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할 건가요? 나는 여러 번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이것은 원인과 결과의 세계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한 곳에 두면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죄를 간과하시고 그들을 그의 종으로 삼으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41장부터 48장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죄는 어떻습니까? 그분은 그들을 죄와 그 죄로 인한 소외로부터 어떻게 구원하실 것입니까? 그분은 어떻게 그들을 다시 자신과의 교제 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까? 전에도 언급했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1장부터 48장까지는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음이 매우 분명합니다. 바빌로니아 신들, 바빌론에 대한 언급.

우리는 47장에서 바벨론 신들의 모든 실패의 결론이 바벨론이 굴욕을 당하게 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이제 구원의 언어는 49장부터 55장까지 계속됩니다. 속박으로부터의 구원, 포로 생활에서의 구원, 하나님께로의 구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이제 많은 주석가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41장부터 55장까지에서 정말로 말하고 있는 것은 포로 생활에서 구원받는 것뿐입니다. 저는 오늘 밤, 다음 주, 다음 주에 이 장들을 살펴보면서 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보여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바벨론에서의 구원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수준의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가용 시간을 최대화하기 위해 49장부터 51장까지 세 장을 살펴보겠습니다.

49장이 시작됩니다. 해안지대들아, 내 말을 들어라. 멀리서 온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는 태에서부터, 내 어머니의 몸에서부터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는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들었습니다. 그 손 그늘에 나를 숨기셨도다
그는 나에게 빛나는 화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화살통 속에 나를 숨겼습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
이스라엘이라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니라 그러나 나는 내가 수고한 것이
헛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허영을 위해 내 힘을 소비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권리는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은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히 국가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읽은 내용 중 이 구절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41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불순종. 또 뭐야? 이런.

결국 트럭 운전을 파헤쳐야 할 것 같아요. 작은 트럭을 구입하세요. 응.

좋아요. 42장 18절과 19절, 18, 19, 20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인은 어떻습니까? 죽음, 장님, 보지 않음. 20절. 그는 많은 것을 보되 지키지
아니한다.

그의 귀는 열려 있지만 듣지 못합니다. 22절. 그들은 약탈을 당하고 노략을
당하며 다 굴에 갇히고 옥에 갇힌 백성이로다.

49. 나는 그의 화살통 속에 숨겨져 있는 빛나는 화살이다. 멜은 그것이 메시아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나의 권리는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은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면 그것은 다른 종류의 이스라엘입니다.
계속하자.

5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신 이가 무엇을
위하여 자기를 섬기게 하셨느냐? 야곱을 그에게 다시 데려오십시오. 계속해.

그리고 이스라엘을 모아라. 자, 잠깐만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모을 것인가? 사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이상적인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체로는 결코 될 수 없었던 이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42장 1절부터 9절까지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은 알아차렸습니다. 6절,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의로움으로 너희를 불렀다. 내가 네 손을 잡고 지켜줄게. 내가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이방의 빛으로 주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며 갇힌 자를 암흑에서, 흑암에 앉은 자를 끌어내리라.

그리고 여기 49장 6절에서는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여야 함을 조명할 것이니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 종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만으로는 너무 작은 일입니다.

이 종은 지구를 구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국가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7절을 보십시오.

세상은 멸시받고 혐오받는 이 종에 대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에서 하나님은 그 종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무엇을 하겠다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8절,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리라.

42장에서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땅을 굳건히 하고 황폐한 기업을 분배하며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죄수들에게 말하세요. 이제 다시 말하거니와 이스라엘이 옥에 갇혔으면 이스라엘은 갇힌 자에게 나오라 할 수 없느니라. 11절, 내가 내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돋우리라.

보라, 이들은 먼 곳에서 올 것이다. 이들은 북쪽에서, 이들은 서쪽에서, 이들은 수에네 땅에서 왔습니다. 35장 8절로 돌아가 보세요.

거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고속도로, 거룩함의 고속도로. 그리고 10절은 누가 그 길을 걸을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리라.

분명히 이 종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께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사람들을 다시 땅으로 돌려보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전에 용서받지 못한 죄로 인해 겪었던 것과 똑같은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2절을 보십시오. 그는 내 입을 그의 손 아래서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셨습니다. 그는 나를 숨겼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그의 화살통에 빛나는 화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는 나를 숨겼습니다. 이제 11장 4절을 보십시오.

숙제하는 사람 있나요?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입의 막대로 땅을 칠 것이다. 그는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리라.

내 입을 날카로운 칼로 만드셨도다. 똑같은 말을 하는 것 아닌가요? 음, 11장은 분명히 메시아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인은 누구입니까? 이 종은 메시아입니다.

이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이상적인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체로는 결코 이스라엘이 될 수 없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13절의 응답을 살펴보세요.

반응은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노래하십시오. 찬양하라, 오 하늘이여, 기뻐 노래하여라. 찬양하라, 오 땅이여.

산들아, 일어나 노래하여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이다. 44, 23절을 다시 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기쁨으로 노래하십시오.

WHO? 누가 노래하고 있나요? 하늘과 땅, 산, 나무. 저게 뭐에요? 노래하는 게 뭐야? 자연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

좋아요, 이제 1장으로 돌아가세요. 다음 주에 이 일을 다시 할 예정이지만 괜찮습니다. 2절,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소송을 심리하는 재판관은 누구입니까? 하늘과 땅.

예. 자연은 우리의 죄성을 증거하고 우리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모든 자연은 신음하며 우리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저주를 받았고, 자연이 구원을 받아 이 종의 일을 기뻐할 날이 올 것입니다. 44장과 49장에 다시 있습니다. 이 글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이 9절을 보고 그것을 61장 1절과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며 49.9 죄수들에게 나오라 하며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라 하였느니라 이 하인은 누구입니까? 이상적인 하인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종의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이 종, 모태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 종은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할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아니라 죄의 포로가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질문이 생깁니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할 것입니까? 하지만 거기 있습니다. 42장에는 이 종의 계시를 기뻐하는 내용이 여섯 구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은 내가 41~48절에서 한 가지를 제외한 모든 언급은 국가에 관한 것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여기 49-55장에서 내가 말해야 할 것은 순종적이고 민감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 백성과의

언약이 되어 나라에 공의를 가져오도록 부르심을 받은 종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49~55장에서는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이상적인 종에게 속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54장의 가장 마지막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비율의 흥미로운 플립플롭입니다.

내 생각에 41~48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이상적인 종을 거기에 소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요점은 당신이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 경우에는 당신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그분이 당신을 위해 이 일을 하셨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그분에게 있습니다. 괜찮은.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무엇인가? 산과 언덕이 종의 이 큰 기쁜 소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불신.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잊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언덕과 하늘과 땅이 '아, 안타깝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박쥐처럼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말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40장 27절을 보면 거기서도 다소 비슷한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갈망, 그분의 구원 능력, 구원하려는 의도가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백성은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다”고 대답합니다. 나의 권리는 나의 하나님에 의해 무시됩니다. 자, 여기 49 14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이건 어떻게 다른가요? 49장 27절에 주님께서 숨기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길과 나의 권리. 이제 49 14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습니다. 그는 나를 잊었다.

더욱 뾰족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내 방식을 무시했어요. 그 사람은 내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나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 버림받은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럴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스스로 자초했습니다. 이제 그는 어떻게 그것들을 자신에게로 되돌릴 것인가? 괜찮은.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15절은 어떻습니까? 수유하는 엄마가 아기를 잊을 수 있나요? 어쩌면 그녀는 그럴 수도 있지만 나는 당신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문신을 했습니다. 정말 큰 손이군요.

거기에는 우리의 이름이 모두 적혀 있습니다. 이제 15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한 가지 주된 관심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돌려주실 것입니다.

눈을 들어 18절을 보세요. 눈을 들어 주위를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모두 모일 것입니다. 내가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이 너희에게 올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당신은 그것들을 모두 장식품으로 놓을 것입니다.

당신은 신부처럼 그것들을 묶을 것입니다. 너희가 황폐한 곳과 황폐한 땅에 너희를 황폐하게 하였느니라. 분명히 이제 당신은 주민들에게 너무 좁을 것입니다.

너를 삼킨 자들은 멀리 있을 것이다. 네 사별의 자식들이 네 귀에 말하기를 이 곳은 내게 너무 좁다 하리로다 내가 거할 공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러면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나를 이렇게 낳았느냐?'라고 말할 것이다. 나는 유족이 되어 불임이 되었고, 추방당하고 버림받았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꺼냈나요? 나는 혼자 남겨졌다. 이것들은 어디서 왔나요? 그런데 왜 그것이 추방된 사람들에게 걱정거리가 되겠습니까? 추방된 사람들은 대개 그냥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셨지만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모두 선한 바벨론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반대가 사실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다 어디서 왔나요? 네, 어디에 놓을까요? 사실,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단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 민족은 586년부터 539년까지 약 한 세대 반, 약 45년 동안만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해산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생명을 보존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나 자신으로 복원 할 것입니다.

그러면 24절, 권세 있는 자나 폭군에게 포로된 자들의 기도를 구출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강자의 포로라도 잡히겠고 폭군의 포로라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너와 다투는 자와 다투고 네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44장에 보면, 내가 마른 땅에 물을 주리니 네 자손이 물 가의 골풀처럼 돋아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손에 주님의 것을 쓸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야곱에게 속했다고 말할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아니, 아니, 나는 당신이 한 민족으로서 사라지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그 약속이 여전히 유대 민족에게 적용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을 제거하려고 노력한 지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유대인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기 그들이있어. 여전히 일관된 그룹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돌보신다는 사실 외에는 이에 대한 어떤 좋은 설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그들을 그리워하고, 갈망하고, 당신의 손으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자, 당신이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선택받았다는 것이 이것이 의미한다면 우리는 보호받지 않고 싶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여전히 선택된 사람들 중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응, 응. 히틀러, 괴벨스, 괴링은 지구상에서 유대교를 파괴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히틀러와 괴벨스와 괴링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주 따뜻한 곳에서. 예, 그렇습니다. 좋아요, 이제 23의 마지막 부분과 26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연구와 다른 연구에서 우리가 접한 진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23절을 알 것이고, 26절은 누가 알겠습니까? 모든 육체와 모든 사람은 내가 여호와요, 너희 구원자요, 너희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 점을 지적합니다. 그는 여기에 나의 모든 성취가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그 목록에 맞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것이 모두 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모든 것을 잃음과 미련한 자로 일컬음을 받는 것을 기뻐하노라.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둘 중 어느 것에도 잘못된 것은 없지만 바울의 관심을 끄는 목표는 나는 그를 알고 싶다, 그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싶다, 그를 나의 개인적인 구주로 알고, 그를 나의 개인적인 구주로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개인적인 구속주로 알고, 나의 친구로 아십시오.

정확해요, 정확해요. 바울이 진지하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그를 알고 싶습니다. 내가 사랑에 빠진 사람이 갈보리산을 걸어가야 한다면 나도 그 사람과 함께 올라가고 싶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가 진지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가 진지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태양이 빛나면 그 사람을 알고 싶어요.

모든 일이 잘 진행될 때 그를 알고 싶습니다. 바울은 갈보리까지 그를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갈보리 저편에 부활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순한 마조히스트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으셨으니 나도 고통을 받고 싶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좋아, 계속해서 노력하자. 그 부분은 실제로 시트에 있는 대로 49, 14에서 50, 3절까지 이어집니다. 당신은 나를 버렸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보게 될 증거가 있습니다.

당신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자녀를 갖게 될 것입니다. 왜? 왜냐하면 나는 너의 구속자이기 때문이다. 잠깐만요.

50장 1절, 2절, 3절. 지금, 뒤에서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유배자들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이혼하셨다고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버림받은 것과 이혼한 것은 같은 말입니다.

당신은 우리와 이혼했어요. 글쎄요, 법에서는 남편이 이혼한 여자와 마치 다른 남편과 관계를 가졌던 것처럼 재혼할 수 없다는 것을 매우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우리와 이혼했어요.

당신은 우리를 다시 데려갈 수 없습니다. 또는 다른 비유를 사용하려면 채권자에게 돈을 지불하기 위해 우리를 팔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우리를 다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 어머니의 이혼 증명서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당신과 이혼했다고 누가 말하던가요? 내가 당신을 채권자 중 누구에게 팔았습니까? 당신의 죄악으로 인해 당신은 팔렸습니다.

당신의 범죄로 인해 당신의 어머니가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요점은, 아니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반하여 이 일을 하도록 강요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그분에게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막고 싶었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그분이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자유롭게 당신을 다시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2절에는 몇 가지 가능한 해석이 있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개입하여 추방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틈에 서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셈어이고 셈어에는 과장법이 있습니다.

사로잡혀 갈 때에 유다에 의인이 없었느냐? 아니요, 의로운 사람들이 있었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재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나요? 물론 중재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이 '이제 포로된 너희 중에 너희를 구속할 수 있는 자가 없느니라'고 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내 손이 짧아진 걸까? 아무도 없었다면, 포로 생활이 일어났던 당시에 의인이 없었다면, 그 당시에 중보자도 없었다면, 지금 당신을 구원해 줄 사람이 없다면, 내가 할 수 없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이제 이 손과 팔 부분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 점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단어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관해 이야기할 때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특히 다음 주 공부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50장 4절부터 9절까지 갑니다. 여기서 종이 말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42장에 있었고, 두 번째는 49장에 있었고, 여기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피곤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침마다 깨우치시며 내 귀를 깨우쳐 학자들처럼 듣게 하시느니라.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 주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겼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겼다. 나는 치욕과 침 뱉음을 당하여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사오나 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나이다.

그러므로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얼굴을 부싯돌처럼 굳혔습니다.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압니다.

내가 전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에 관해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느냐? 당신이 신뢰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불명예에 대한 생각.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느니라.

누가 나와 다툴 것인가? 우리 함께 일어서자. 나의 적은 누구인가? 그 사람이 나에게 가까이 오도록 해주세요. 보라, 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느니라.

누가 나에게 유죄를 선고할 것인가? 보라, 그것들은 모두 옷처럼 해어질 것이다. 나방이 그것들을 먹어치울 것이다. 괜찮은.

이 구절에서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빨리 가자. 우리의 시간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좋아요.

그는 순종할 것입니다. 그는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괜찮은. 또 뭐야? 좋아요. 그는 격려자입니다.

또 뭐야? 괜찮은. 예. 괜찮은.

또 뭐야? 좋아요. 좋아요. 괜찮은.

무엇? 빛. 좋아요. 들을 수 있는 귀는 어떻습니까? 그분은 듣고 말씀하십니다.

꽤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고통받겠죠? 예. 그리고 내 생각에 우리는 그것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그가 부당하게 고통을 받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유죄로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우리는 국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10절에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히브리 시에 관해 말한 것을 기억하시나요? 히브리 시의 주요 특징은 무엇입니까? 동의어 병렬성. 두 번째 줄은 첫 번째 줄과 동일하지만 단어가 약간 다릅니다. 그렇다면 10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평행법에 따르면 하인은 누구입니까? 주님. 주님을 경외한다면 종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종의 목소리에 순종하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종은 야훼와 동일시된다. 맙소사. 그러므로 종의 목소리에 순종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당신이 여기서 강조한 것처럼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불의와 부당한 고통 앞에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음, 그게 어디서 오는 걸까요? 왜? 그런데 이 사람은 왜 고통을 받는가? 왜 치료를 받나요? 왜 그는 나쁜 대우를 받나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 답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둠 속을 걷는다면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10절과 11절에 따르면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스스로 불을 피울 수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 당신은 고통 속에 누워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태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사실인지. 정말 그렇군요. 나는 내 자신의 교육으로 내 길을 밝히겠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성취로 내 길을 밝히겠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 길을 밝히겠습니다. 나는 인간의 사랑으로 나의 길을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행운을 빌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10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빛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신뢰하고 그의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이 책에서 신뢰에 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그렇지 않았다면 당신은 여기에 와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종됨의 기초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이며, 우리는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계속해서 51번으로 가세요.

여기에서 Listen이 몇 번이나 반복되는지 확인하세요.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4절, 나에게 귀를 기울이라, 내 백성이, 내 나라 백성이 나에게 귀를 기울인다.

7절, 의를 아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는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잡았나요? 정의를 추구하는 당신. 4절, 내 백성아.

7절, 정의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시여.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글쎄, 그들은 듣기가 어렵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왜 이 사람들에게 말해야 하는 내용을 다루나요? 좋아요, 제 생각엔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이들은 좋건 나쁘건 진심으로 의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앞으로 무슨 말을 할지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리고 다시 유배자들의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내 생각엔 적어도 세 그룹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의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정의를 조롱하며 야, 이게 다 미친 짓이구나 하는 자들. 성경의 가르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바벨론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살아남은 큰 무리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버티며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들이 이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2절, 네 조상 아브라함을 바라보라.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잊지 마세요. 3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위로하심이로다.

이것이 처음으로 받는 위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말했던 대로 위로가 최고의 번역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격려하고 강화하는 것이 더 나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나오는 것은 40장 이후 처음입니다.

제가 40장이 41장부터 55장까지 모두의 입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

4절, 토라는 나에게서 나갈 것이다. 나는 나의 정의를 민족들에게 빛으로 세우리라. 나의 의가 가까워졌습니다.

나의 구원이 사라졌습니다. 내 팔이 민족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해안지대, 땅 끝은 그들이 알든 모르든 나에게 희망을 준다.

내 팔을 위해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를 구하는 자들아, 포기하지 말라. 나의 구원이 다가오고 있으며 그것은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아래 땅을 보세요.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땅은 옷처럼 해어질 것입니다. 거기 사는 자들도 그와 같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구원은 영원할 것이다.

내 의는 결코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하늘과 땅이 도망갈 것이다. 그러나 나의 구원, 나의 의는 영원할 것이다.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7절에서는 사람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욕을 인하여 놀라지 말라 . 조금만 참아라, 자기야.

리빙 오스왈드 버전입니다. 좀이 그들을 옷처럼 먹어치울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의는 영원하리라.

모든 세대에 대한 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는 일종의 흔들리는 사람들을 격려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서다. 확고히 서십시오. 오, 그리스도교국이 우리 주변에서 혼란에 빠지는 것을 볼 때 이것이 여러분과 나에게 참으로 사실입니다.

저는 51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9절, 주의 팔이여 깨어나소서.

여러분은 어디에 계셨나요? 하지만 적어도, 적어도 그들은 반응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여기 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절을 두 번 보았습니다.

내 팔이 민족들을 심판할 것이다. 해안지대, 땅 끝이 나에게 희망을 준다. 내 팔을 위해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잠깐만요? 땅 끝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팔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 있습니다. 일어나소서, 주님의 팔이여.

그리고 그들은 고대 창조 신화에 대한 암시를 사용합니다. 정말로 혼돈을 파괴하신 분은 바로 당신이시며, 홍해에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구원은 당신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여기 51, 11절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리라.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기쁨과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슬픔과 한숨이 달아날 것입니다. 나, 나는 너희를 격려하는 사람이다.

너는 누구이기에 죽는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풀처럼 창조되었으나 잊어버린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내가 당신을 잊었다고 생각하나요? 하늘을 펴시고 땅의 기초를 정하시고 너를 지으신 여호와를 네가 잊어버리고 그 대적의 진노로 말미암아 종일토록 두려워하느니라. 내가 일어나기를 바라나요? 당신은 깨어 있어야 하며,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의 구주에게서 우리의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는 이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한 일을 믿고 기억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절에 보면 누가 깨어나야 합니까? 예루살렘은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할 것은 주님의 팔이 아니라, 깨어나야 할 것은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회의에서 여기서 연설의 비유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당신이 여호와의 손을 마셨으니 어찌하리이까? 그의 진노의 잔. 너희는 대접, 비틀거리는 잔을 찌꺼기까지 마셨다.

이제 21절. 곤고한 자들아, 취하여도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 주 여호와, 자기 백성의 신원을 신원하시는 너희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리게 하는 잔과 내 진노의 대접을 너희 손에서 거두어 너희가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였느니라

좋아요, 그래서 그는 당신이 그것을 마셨지만 그것은 끝났고 당신의 적들이 그것을 마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손에서 그 잔을 거두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의 헤세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의 헤세드는 겟세마네 동산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끝날 것입니다. 비틀거리는 잔, 인류의 모든 사악한 죄가 담긴 잔.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네 손에서 빼앗아 갈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나는 그것을 당신의 적의 손에 넘겨주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 손에서 그것을 빼앗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자신이 그것을 마시고 바닥까지 마시는 것뿐입니다.

그렇다, 너희는 나의 종이다. 문제는 '어떻게?' 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손에서 그 컵을 빼앗을 수 있는 방법이 발견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기도하자. 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아,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 감사합니다. 당신은 컵을 가져다가 바닥까지 마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쇠퇴하는 교회 가운데, 가능한 한 빨리 스스로를 파괴하려는 문화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으로, 침착하게, 승리의 의욕으로 서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격려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서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오 주여,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알고, 세상 끝에 당신이 하실 일을 확실히 알게 하시고, 모든 일을 다 하신 후에 서게 하소서.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은 이사야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John Oswalt입니다. 이사야서 49장부터 51장까지의 24회기입니다.